



090e



ego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공 시 현

이 정 석

송 영 재

김 도 형

이 재 홍







e

g

o

어느 덧

우리가 만난 지 십년이 되어 갑니다.

이제는 표정만 봐도 알겠지요.

장난으로 시작했던 사이가

장난으로 시작했던 사진이

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 되었습니다.

이십칠

지금처럼 다른 사람들과 다른
특별한 관계의 남자들이 되길.

이 추억을 _____ 에 게 드림.

이 재 홍 (인)

공 시 현 (인)

